

No. 62

2007 March

(재) 국제노동재단

우편101-0051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진보초 3-23-2 금명빌딩5F TEL. 03-3288-4188 FAX. 03-3288-4155

URL:<http://www.jilaf.or.jp> E-mail:[info@jilaf.or.jp](mailto:info@jilaf.or.jp)

심포지엄을 개최

12/6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HIV/AIDS를 직장의 문제로 의식~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 아시아·아프리카·북미·유럽지역의 노동조합조직으로부터 에이즈 문제를 담당하는 11명의 노동조합지도자를 초빙했다. 이번에는 11월에 재결성된 후 처음으로 ITUC본부와 그 지역조직인 아프리카지역회의(ICFTU-AFRO),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ICFTU-APRO)를 초대할 것 이외에, 방글라데시 ICFTU협의회(ICFTU-BC), 보츠와나 노동조합연맹(BFTU), 인도 전국노동조합회의(INTUC), 나미비아 전국노동조합(NUNW), 파키스탄 노동자연맹(PWF), 잠비아 노동조합회의(ZCTU), 미국 노동조합총동맹 산별회의(AFL-CIO), 캐나다 노동조합회의(CLC)에서 각 1명이 참가했다.

지금, 전세계에 4200만명이라고 전해지는 에이즈 감염자의 대부분이 노동자로, 특히 아프리카 각국에서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고용이 상실되어 각국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HIV/AIDS를 테마로 한 초빙 목적의 하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의식이 희박한 일본사회에 심각한 에이즈 문제를 호소하고, 앞으로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키고, 또 참가자 전체의 정보공유화를 통한 공동인식을 갖자는 것이었다.

12월 6일, “직장에서의 HIV/AIDS문제”라는 제목을 붙인 심포지엄은 JILAF와 ILO주일사무소의 공동주최, 연합과 후생노동성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ITUC본부로서의 대처와 대책을 다룬 기초강연과 ILO본부 디오푸(Assane Diop)사무차장의 비디오 메시지로 시작된 동심포지엄의 참가자의 대부분은 에이즈 영향 아래에 있는 도상국이다. 제1부에서는, 처음에는 감염율이 낮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에이즈가 지금은 국민의 35%가 양성자라는 것 등을 비롯하여, 각국의 상황과 대책이 보고되었다. ILO의 하세가와(長谷川) 주일대표를 판넬 토론 코디네이터로 맞이한 제2부에서는, 에이즈 문제에 노동조합이 힘을 쏟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각국 및 지역조직으로부터 경험담을 들었다. 2006년 8월에 세계규모의 에이즈 노동 포럼을 개최한 캐나다 CLC대표가, 에이즈 문제는, 해고 및 조직을 저하 등 노동조합의 문제이며, 여성의 인권존중, 건강문제이기도 하여, 캐나다의 노동조합은 이미 적절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JILAF의 대처의 하나로서, 연합과의 연계를 통해 현지의 노동조합과 협력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HIV/AIDS 코어트레이너 교육이 있다. 잠비아의 대표로부터, 2004년에 실시된 교육 훈련 세미나 후의 활동 보고가 진지하게 발표되어, 국제연대·지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지금, 일본의 에이즈 감염자는 약 12,000명이라고 전해지는데, 젊은이의 감염율이 상승하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에이즈는 직장의 문제이며, 인권문제라는 것, 또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최대의 과제는 차별이 없는 직장환경 만들기, 어떻게 하여 각자가 대등하게 일하는 동료로서 서로 도울 것인가가 제기되었다. 끝으로 캐나다 CLC부회장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HIV/AIDS는 노동자의 질병으로, 우리들 노동조합이, 운동으로서 이에 전적으로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연대 속에 희망이 있다.”

- ▲각국의 대처에 대한 활발한 판넬 토론
- ▲유엔대학, 엘리자베스 홀에 약 80명이 출석했다

1/23, 1/25초대 폴로업 세미나를 개최  
 각국이 안고 있는 과제를 상호이해  
 ~싱가폴NTUC·말레이시아MTUC~

과거의 JILAF초대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폴로업 세미나를 1월 23일 싱가포르, 1월 25일 말레이시아의 스란골에서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중국, 방글라데시에서 실시된 폴로업 활동에 이어지는 것이다.

싱가폴 NTUC(National Trade Union Congress)의 세미나에서는, JILAF의 도쿠모토(得本) 이사장으로부터 일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최신 상황 설명이 있었고, 이에 이어, NTUC에서는 고령노동자의 재고용 문제등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NTUC회장인 John De Payva씨는 초빙프로그램 참가자의 한사람으로, 다른 참가자들도 귀국후 NTUC의 요직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MTUC(Malaysian Trade Union Congress)에서의 세미나는, 최근의 큰비로 인한 침수로 교외로부터의 참가 예정자가 참가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일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 후, 생산성과 연동한 성과주의 임금에 관한 활발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양쪽 세미나 모두, 각국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상호이해를 깊이하고, 결실있는 세미나가 되었다.

- ▲싱가폴NTUC 폴로업 세미나(오른쪽에서 3번째 John De Payva NTUC)
- ▲말레이시아MTUC 폴로업 세미나(Syed Shahir회장의 개최인사)

11/13~16 POSITIVE세미나를 개최  
 안전위생활동의 향상에 기대  
 ~코어트레이너에 의한 첫 세미나~

KSPI(ITUC※1=Indonesian Trade Union Congress)는 2003년 2월 1일에 새롭게 결성되어, 2005년 12월에

ICFTU(현재의 ITUC)에 가맹이 인정된 젊은 조직이다. JILAF는 이 조직으로부터의 안전위생 활동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2006년 2월에 POSITIVE 도입 세미나, 동 9월에 POSITIVE 코어트레이너 육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2006년 11월 13일~16일의 일정으로, 각 산별로부터 지금까지 2회의 세미나에 참가하여 선발된, 12명의 인도네시아인 코어트레이너에 의한 첫 POSITIVE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에서는, 노동과학연구소의 오기카즈타카(小木和孝) 주관연구원과 나가스미와코(長須美和子) 협력연구원, 이노우에도모타카(井上友孝)(현지지원사업부 그룹리더) 3명이, 개최 장소인 자카르타 근교의 보갈(Bogor)에 갔다.

12명의 코어트레이너들은 정성어린 준비와 열의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신규참가자들도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앞으로의 ITUC의 POSITIVE프로그램 및 안

전위생활동의 향상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할 수 있었다.

※1 2007년 2월, 인도네시아ITUC는 전세계조직, 국제노동조합총연합ITUC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CITU(Confederation of Indonesian Trade Union)로 명칭을 변경했다.

▲세미나 참가자일동의 기념촬영

회랑

하야시 도시타카(林俊孝)

## PROFILE

주재 남아프리카 일본대사관서기관

2000년 연합 입국

2003~2005년 연합지바(千葉)로 파견

2006년부터 현직

월드컵 개최를 향해  
~남아프리카의 과제~

남아프리카에서 개최 예정인 2010년 월드컵까지 3년, 축구팬뿐만아니라, 온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프리카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현재, 급속도로 스타디움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최를 앞두고 국내에서는 고실업률, 치안, 소득 격차, HIV/AIDS 등의 산적된 문제가 부상되어, 정부의 대응이 재촉되고 있다.

올해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2009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베키(Mbeki) ANC총재(현대통령)의 후계자가 될 총재 선거를 하는 중요한 해가 된다. 아파르트헤이트 종언이후 12년, 민주화 정권탄생 후에 전국민이 처음으로 참가한 1994년의 총선거에서 투표율 86%였던 때의 열기는, 선진국의 정치 무관심과 같이 저하되고 있다 (2006년 통일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8.4%). ANC지지자에 이어 무당파층이 많고, 의회는 국민의 정치 결별을 염려하여, 보다 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전체 9주(州)에 의회의 지방사무소 설치를 결정했다.

남아프리카의 최대 내셔널센터,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는, 여당 ANC와 남아프리카 공산당(SACP)과 3자동맹 관계에 있으며,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NC 총재선거의 후보자를 둘러싸고, COSATU등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즈마(Zuma) 전부대통령과와 현직 무베키대통령과와의 마찰도 있어, 3자동맹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COSATU를 둘러싼 환경이 더욱 주목된다.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국제협력No. 14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도쿄  
아라카와구(荒川区) 직원노동조합서기관  
시라이시다카시(白石孝)씨

## 라오스 “독서 추진 활동”~어린이집~

자치단체 노동조합본부와 SVA(샹티 국제자원봉사회)가 국제협력사업으로서 라오스 뵘엔찬(Vientiane)에서 스타트한 “어린이 집”사업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다.

자치단체 노동조합도교의 구성 조직이 1997년부터 어린이 집에서 “독서 추진 활동”지원에 힘을 쏟은 것을 계기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처를 시작했다. 그 목적은, 라오스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과 도서관을 통해 독서를 하고, 라오스의 전통문화, 사회경제의 현재를 알고, 어린이들의 손으로 미래를 창조해 가는 것이다.

동노조는 매년, 라오스 독서 추진 활동 지원 투어를 실시하고, 작년 7월에는, 도서관·아동관·탁아소등에서 일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22명이 참가했다. 현지직원및 어린이 자원봉사 직원에게 페퍼사토(부채형 종이인형극), 가와리에(바뀌는 그림)등 4종류의 방법으로, 그림책에 그려진 이야기를 연기하고, 아이들의 독서 추진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시라이시씨는, “도서관을 설치했을 때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이 없었지만, 현재는 독서 추진 활동이 정착되어, 차분히 책을 읽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장기간에 걸쳐 대응해 온 이 활동은, 라오스 정부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얻게 되었다. 작년 7월에는, 동정부에서 정보문화장관의 이름으로 감사장이 보내졌다. 시라이시씨는, “단지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뿐만아니라, 운영및 연수에도 직접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인적 자원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자치단체 노동조합도교만이 할 수 있는 국제협력 활동이 아닐까”하는 이야기를 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전문기술을 전하는 “독서 추진 활동”지원은, 자치단체 노동조합도교의 조합원이 라오스의 어린이들에게 발신하는 다이렉트 메시지이며, 참된 의미에서의 국제협력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조합원 스스로가 대응하는 국제협력 활동이 더욱 널리 퍼지고, 라오스와 일본을 잇는 사다리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취재:조사홍보부 가토(加藤))

12/11~15

## KOILAF의 대표단을 초대

한국의 한국국제노동재단( KOILAF~Korea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은, 한국 내외의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노사관계의 발전과 정착, 또 민간노동 분야의 교류를 통한 노동 분야의 국제간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정노사(政勞使) 3자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한 지원및, 외국인노동자에게 대한 상담 활동, 교육을 실시하는등, JILAF와는 조직의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JILAF와 1999년부터 정기교류를 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서로 대표단을 보내어 의견교환을 하며, 교류를 깊이 하고 있다. 2006년도는 12월 11일부터의 5일간, KOILAF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KOILAF의 Kim Sung Jin 국제협력총합국장, Kim Ji Hyun 해외조사부과장과, 한국 노사정치위원회( Korea Tripartite Commission(KTC))로부터 Park Yeon Jeong 대외협력실장 모두 3명이 방일했다. JILAF와의 회담에서 쌍방의 협력관계와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확인했다. 더욱 2007년에는, KOILAF를 노사발전재단(가칭)으로 재 조직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한국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 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노동자측·사용자측이 협동하여, 정부측과도 합의하고, KOILAF를 발전·확대시켜 재 조직한다는 것이다.

체제기간 동안은 연합, 후생노동성, 일본경제단체연합을 표경방문하고, 또 미쓰비시전기

(주) 시즈오카 제작소를 견학하여, 노동조합과의 결의를 했다. 또 국제노동문제연구회에서  
는, 한국의 최신의 경제·고용 정세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KOILAF대표단이 최신의 한국의 노동 사정에 대해서 보고

JILAF 달력

■활동 보고 (2006년 12월~2007년 2월)

●초빙

- “직장에서의 에이즈 문제”팀 (2006/11/30 ~ 12/13)
- 유라시아팀 (1/18 ~ 31)
- 남미팀 (2/1 ~ 14)
- “젊은이 고용과 노동조합의 역할”팀 (2/15 ~ 28)

●현지지원

- 몽고CMTU/POSITIVE 코어트레이너 육성 세미나 (11/27 ~ 12/4)
- 필리핀TUCP/POSITIVE 코어트레이너 육성 워크숍 (12/5 ~ 12)
- 파키스탄PWF/전국 세미나·노조 기초교육 세미나 (12/16 ~ 23)
- 타이UNI/조직화 세미나 (1/12 ~ 16)
- 싱가포르SNTUC, 말레이시아MTUC/폴로업 세미나 (1/21 ~ 27)
- 인도네시아ITUC/노동법 개정지역 세미나 (1/28 ~ 2/7)
- 네팔NTUC/학교 모니터링 (1/30 ~ 2/10)
- 필리핀TUCP/CSR세미나·여성 세미나 (2/4 ~ 11)

●기타

- “직장에 있어서의 에이즈 문제”국제 심포지엄 (12/6) <유엔대학 UN하우스>
- KOILAF(한국국제노동재단)와의 정기교류 (12/11 ~ 15) <동경>
- JILAF신년 모임 (1/9) <JILAF회의실>
- 국제교류 여성팀 파견 (1/27 ~ 2/2) <오스트레일리아>
- 총무위원회 (2/22) <총평회관>

■활동 예정(2007년 3월~)

●현지지원

- 아프리카/폴로업 세미나(3/6 ~ 19)

●기타

- 제50회 이사회·평의원회 (3/2)

2007년 JILAF “신년 모임”

1월 9일에 개최

연합 다카기(高木)회장, 고가(古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산별, GUFs, 관계 조직으로부터 약 100명의 여러분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또, 작년부터 JILAF초대국인 재일대사관에도 초대장을 보내 (작년은 아시아지역, 올해는 중남미지역, 내년은 아프리카지역을 초대할 예정),

우루과이대사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사인 안나마리아에스테베스(Anna Maria Esteves)씨, 베네수엘라대사관에서 임시대리 대사인 호세부리세뇨(Jose Briceno)씨가 출석하여, 성황리에 신년의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